

'니체 르네상스' 개막 알리는 '신호탄'

소장 철학자 중심으로 니체 철학의 현재성 조명해

박영욱 | 고려대 강사

“최근 우리 학자들에 의해 니체의 사상을 다룬 방대한 논문집이 두권이나 발간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 단일 사상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문집이 단행본으로 발행되는 일도 흔치 않은데 동시에 두권이나 발행된 것은 최초의 일이다. 금년이 니체 사후 100년이라는 연대기적인 의미도 있지만, 철학 분야에서 새로운 밀레니엄 담론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기독교의 역사가 곧 《성경》 해석의 역사라고 말한 바 있다. 어느 분야에서나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 되는 책을 흔히 그 분야의 '바이블'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성경》은 확고한 책이다. 하지만 이런 《성경》도 항상 새롭게 해석돼 왔고 심지어 해석의 차이가 끔찍한 피의 분쟁을 부르기도 했다. 물론 소모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도 있겠지만, 뒤집어 놓고 본다면 어떤 텍스트든 새롭게 해석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재해석의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책이야말로 고전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현대철학계에 재등장한 니체라는 '유령'

이렇게 보면 니체의 글들은 고전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음에도 철학사학들에 의해 철저하게 외면당해왔다. 이런 외면은 철학사학자들의 단순한 편견이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듯하다. 의도적으로 니체를 주류 철학에서 제외시킨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니체의 글쓰기가 기존 학술저서의 격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학적 비유나 지나친 수사법의 사용, 빈번히 발견되는 비문 등은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학술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적 글쓰기로 취급받고 있다. 그런데 니체가 의도적으로 외면당한 이유는 더 근본적인 데 있다. 니체의 사상이 당대의 주류 철학을 근본적으로 비판함으로써 그런 주류로부터 의도적으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니체의 처녀작이라 할 수 있는 《비극의 탄생》만 하더라도 당시 예술사에서 공리처럼 여겼던 주류 이론가 빌헬름 빈켈만의 이론을 공격하고 있다. 또 그가 철학적 지주로 삼는 쇼펜하우어 역시 강단 철학에서 이단으로 취급받던 인물이었음을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몇십 년 전부터 '니체 르네상스'라고 불릴 만한 철학사적 전회가 일어난 것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니체 철학이 기존의 철학적 문제들에서 가장 멀리, 아니 완전하게 이탈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하이데거가 일찍이 니체 사상을 깊이 있게 다루긴 했지만, 니체 르네상스가 일어난 것은 들뢰즈나 푸코와 같은 탈구조주의 사상가들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철학에서 니체적 전회가 일어난 것도 따지고 보면 이들 탈구조주의 이론가들의 새로운 니체 해석에 힘입은 바 크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우리에게 알려진 니체는 이들의 문제틀로 본 니체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 해석에서 객관적이라는 말은 불가능하지만 니체 자신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니체 이해의 새 지평 열어

최근 우리나라에서 우리 학자들에 의해 니체의 사상을 다룬 방대한 논문집이 두권이나 발간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 단일 사상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문집이 단행본으로 발행되



성진기 외 지음
철학과현실사/A5신/606면/20,000원

김상환 외 지음
민음사/A5신/474면/18,000원

는 일도 흔치 않은데 동시에 두권이나 발행된 것은 최초의 일이다. 금년이 니체 사후 100년이라는 연대기적인 의미도 있지만, 철학 분야에서 새로운 밀레니엄 담론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두권 모두 소장 철학자들이 중심이 돼 새로운 니체 이해의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철학계의 밝은 앞날을 보는 듯하다. 두권은 모두 니체 철학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 논문들을 종합하고 있는 논문집이지만 특성상 약간의 편차를 보인다. 《니체가 뒤흔든 철학 100년》(김상환 외, 민음사)이 집필자들의 특성상 주로 탈구조주의 이론과 니체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다면, 《니체 이해의 새로운 지평》(성진기 외, 철학과현실사)은 니체 사상과 근대철학의 관계, 현대철학, 동양철학 등 다양한 각도에서 니체 사상에 접근하고 있다. 특히 탈구조주의 이론가들의 니체론은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 반해 헤겔이나 칸트의 철학과 니체 철학을 이론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한 것은 니체 해석의 새로운 깊이를 더해준다. 이 두책의 발간이 앞으로의 니체 연구에 대한 자극이 될 뿐 아니라 많은 철학자들의 사상에 대한 깊이있는 공동 연구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